

# 해피밀 시즌 6-1호를 발간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께,

우리는 지난 해피밀 시즌5를 통해 여호수아서 묵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던 두려움 많은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를 말씀으로 다독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계속되는 해피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함”(수1:8)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새로운 시즌의 해피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무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각자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기도의 제목은 서로 다르지만, 모든 인생의 결론과 해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되심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해피밀 시즌6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ONLY JESUS!

2026년 1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수원평안교회 담임목사 정재광

# 해피밀 시즌6 이렇게 활용하세요 :-)

오늘의 통독범위입니다.

모세오경 통독완성시 <모세오경 마블자석>을 선물로 드립니다.

2026.02.10(월)



## 창세기 1~4장

### 창조와 타락, 구원 계획의 시작(창 3:15)

오늘 해피밀 제목입니다.

오늘 통독범위의 핵심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세상의 시작, 이 세상에  
의 원인이 어디에서 부터 오는지 말하고 있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와 뱀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이 세상이 오염되어, 시기, 질투, 다  
툼, 재해, 살인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창세기의 '시작'에 대한 진술은 고대 다른 신화와는 완전히 독보적으로 다릅니다. 그  
리스도 로마 신화를 보면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들 중에 가장 강력한 신인  
제우스가 티탄과의 전쟁이 끝난 뒤 무료함을 느껴 생명체 창조를 계획했다고 말합니다. 프로  
메테우스는 가장 먼저 인간을 만들고 그 후 동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동생 에피메테  
우스는 여기에서 매우 큰 실수를 하는데, 동물들에게는 강력한 재능들(이빨, 털, 날개 등등)  
을 주었지만, 깜빡하고 인간에게는 재능을 주지 못하여, 인간은 가장 약하고 추위에도 취약  
한 동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불쌍한 인간에게 신들의 '불'을 훔쳐다

오늘 해피밀 묵상 설교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인간은 실패작, 실수작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  
나님의 인간창조는 독보적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뒤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십  
니다. 인간이 온전히 살 수 있는 완벽한 생체를 구성하신 뒤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뜻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집에 오기 전에 부모는 분주하게 아가방을 꾸미기에 바쁩니다. 아기가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인간을 완전하게, 실수  
없이, 무엇보다 가장 존귀하고 사랑함으로 창조하셨음을 창세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대비되게 인간은 사탄의 말을 들어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  
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세상 속에 죄가 들어와 세상을 끔찍하게 오염시키고 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는 핵심 본문에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  
나님의 마음이 들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며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뒷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을 것  
이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학자들은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죄와 사탄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야  
기가 타락한 세상 속에 한 줄기 빛처럼 비추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묵상질문입니다.

#### 묵상질문

1. 세상에 귀여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깊이 묵상해보세요.
2.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최대한 많이, 오랫동안 고백해보  
세요.



# Genesis 창세기

---



그리스도 중심으로 창세기 읽기1



그리스도 중심으로 창세기 읽기2



## 창세기 1~4장

### 창조와 타락, 구원 계획의 시작(창 3:15)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세상의 시작,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 많은 일들의 원인이 어디에서 부터 오는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이 세상이 오염되어, 시기, 질투, 다툼, 재해, 살인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창세기의 '시작'에 대한 진술은 고대 다른 신화와는 완전히 독보적으로 다릅니다. 그리스도 로마 신화를 보면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들 중에 가장 강력한 신인 제우스가 티탄과의 전쟁이 끝난 뒤 무료함을 느껴 생명체 창조를 계획했다고 말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가장 먼저 인간을 만들고 그 후 동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동생 에피메테우스는 여기에서 매우 큰 실수를 하는데, 동물들에게는 강력한 재능들(이빨, 털, 날개 등등)을 주었지만, 깜빡하고 인간에게는 재능을 주지 못하여, 인간은 가장 약하고 추위에도 취약한 동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불쌍한 인간에게 신들의 '불'을 훔쳐다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로마 신화에서 인간은 실패작, 실수작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간창조는 독보적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뒤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십니다. 인간이 온전히 살 수 있는 완벽한 생태를 구성하신 뒤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뜻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집에 오기 전에 부모는 분주하게 아가방을 꾸미기에 바쁩니다. 아기가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인간을 완전하게, 실수 없이, 무엇보다 가장 존귀하고 사랑함으로 창조하셨음을 창세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대비되게 인간은 사단의 말을 들어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세상 속에 죄가 들어와 세상을 끔찍하게 오염시키고 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는 핵심 본문에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며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뒷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학자들은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타락한 세상 속에 한 줄기 빛처럼 비추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묵상질문

1. 세상에 귀여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깊이 묵상해보세요.
2.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최대한 많이, 오랫동안 고백해보세요.





## 창세기 5~8장

# 하나님의 심판과 노아(창 6:8)

오늘 우리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기하급수적으로 악이 번성함을 보게 됩니다. 처음엔 아담과 하와 부부싸움에서 시작했던 죄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이 되었고,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며 '한탄'하시며 '죄'로 물든 세상을 청결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의 번성을 보며 내 안에 있는 죄의 영향력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과거 몇몇 이단자들은 인간은 태어날 때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나, 죄의 문화에 오염되어 죄인으로 양성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그리고 그 악인이 만들어 둔 세상의 문화가 악을 더욱 크게 부추긴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결코 귀여운 죄성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끔찍한 죄의 본성은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이러한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상황이 잘 맞아떨어진다면 우리의 죄성은 언제나 문화 속에 담긴 죄를 보고 배우고 답습하며 더욱 커지고 더욱 악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 하나도 결코 가볍게 보아선 안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세상에 대한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며, 그 죄를 반드시 도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모든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나단 애드워즈가 말하길 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대체로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불편해하는 성품이 있으니 그것은 '거룩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성을 깊게 묵상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단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왜곡하여, 그 심판은 그냥 으름장에 불과하다고 말하거나, 그 심판의 지엄함을 희석시키곤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충분하고 진지한 묵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끔찍한 결말을 제대로 직시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이는 죄 많은 사람이 죄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며, 죄를 어떻게 이기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죄를 이기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속에 담겨있는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곱씹고, 고백하며 죄를 이기는 자들입니다.

## 묵상질문

1. 세상에 귀여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깊이 묵상해보세요.
2.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최대한 많이, 오랫동안 고백해보세요.





## 창세기 9~12장

###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창 12:1-3)

노아의 심판이 일단락 되었지만, 여전히 인간의 죄성은 땅을 물들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는 죄성의 신선한 특성하나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도적인 의식'입니다. 인간은 타락하여 이제는 바벨탑이라고 하는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탑의 모양이 어땠는지, 어디에 쌓였었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그 탑을 쌓는 이유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닿는 탑을 쌓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사단의 계락을 반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들의 이름을 온 지면에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차야 할 세상을 인간의 이름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 이 또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죄의 특성 하나를 보게됩니다. 그것은 '주도성'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주도적인 인간을 추앙합니다. 요즘 세대의 특징 중 하나는 집단적이지 않고, 개인적이라는 것인데, 그들이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데로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인간의 주도성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이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주도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흠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경계해라고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데로' 행동하는 것이 타락의 이유라고 사사기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데로 하는 마음 가짐, 나의 옳음대로 살아가는 마음 가짐 그러한 주도성이 죄의 특성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주도적이지 못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부르실 때,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실 때, 그를 통해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복음을 약속하실 때 아브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람은 자신의 주도적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갔습니다'. 아브람의 이 순종 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가 겻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꺾는 첫 번째 구체적 모습은 나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 묵상질문

1. 주도적인 마음가짐의 죄의 특성이라는 사실을 깊이 회개하며 묵상해보세요.
2. 예수님께서 자신의 원함을 내려놓은 것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묵상해보세요.





## 창세기 13~16장

### 언약 의식 체결과 이스마엘(창 15:6)

하나님께서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나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15장 6절과 같이 여겨주십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람의 믿음이 그에게 '의인'이라는 칭호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칭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죄인과 언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치 집계약을 할 때에 전세사기꾼과 계약을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가려는 죄인과 계약을 맺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람이 의인이 되어졌기에 이제 하나님은 아브람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며 정말 말이 안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람은 정말 믿음직스럽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언약체결 의식 이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출생케 할 자입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계약을 하나님께서 맺고 계십니다.

이 장면에서 특별히 은혜가 되는 표현은 '여겨주셨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아브람을 그가 가진 작고 보잘 것없는 믿음만으로 '의인'이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자격이 안되는 자에게 자격이 있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가 얼마나 죄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며,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기적인 기도와 고백들, 삶의 모습과 태도들을 불쌍히 받아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의인'으로 여겨주셔서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도 참 이상합니다. 반으로 쪼개어진 짐승들 사이로 오직 하나님께서만 지나가십니다(15:17). 본래 고대 근동의 계약 체결 의식은 계약의 두 당사자가 함께 쪼개진 짐승 사이를 걸어갑니다. 이 행위 속에는 "만약 약속을 어길 시 앞에 널부러진 짐승들처럼 반으로 쪼개지겠다는(죽음을 각오한다는) 선언"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방적으로 그러한 계약을 맺고 계십니다.

훗날 하나님께서는 늘 자신을 떠나가고 배신하는 죄인들을 대신해 자신을 반으로 쪼개십니다. 본래는 죄인이 반으로 쪼개져 죽임당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을 대신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도상 위에서 반으로 쪼개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는 언약에 신실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있습니다.

#### 묵상질문

1. 아브람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는 표현을 삶 속에 깊이 묵상해보세요.
2. 믿음 없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보세요.





## 창세기 17~22장

### 언약의 표징인 할례와 하나님의 개입(창 17:8)

우리는 창세기 17~20장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지 이미 13년이 지나갔습니다. 그의 믿음의 근력은 이미 바닥이 난 상태인 듯 보입니다. 사라는 13년 만에 나타나 다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비웃음'을 보입니다. 아브람의 반응도 뜨뜨미지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바닥이 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견디고 인내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어주시며 그들이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것을 보증해주시킵니다. 또한 그들에게 몸에 할례를 하게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믿음이 회복된 아브라함은 이제 열국의 아버지답게 열국을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18장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져 그 분과 관계가 형성된 자의 삶에 있는 사명을 발견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답게 소돔과 고모라를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며,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나의 삶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해야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브라함의 멋진 모습은 쏠살같이 사라집니다. 창세기 20장에서 그는 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는 네게브 지역으로 도피하여,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시집보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위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다시금 개입하십니다.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그에게 진상을 알려주시고, 사라를 보호해주셔서, 아들에 대한 약속을 보존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분은 자신의 약속 성취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구원할 자기 백성이 있으십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만남을 깊이 생각해봅시다.

#### 묵상질문

1.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십니다. 오늘 나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지 묵상해봅시다.
2. 나를 통해 복음을 들어야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생각해봅시다.





## 장세기 23~28장

#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창 28:10-15)

인생을 살다 보면 사방이 짝 막힌 것만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주저앉아 울부지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날이 좋을 때에도, 좋지 못할 때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안위를 돌보십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와 소망을 품으시는 평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절체절명의 순간인지 모릅니다. 앞, 뒤가 짝 막혔습니다. 그런 그의 상황을 대변이라도 해주는 것처럼 본문은 "해가 진지라"라고 시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둠으로 가득 찬 그의 미래입니다. 거기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자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꿈에서 그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가만히 보니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 임했습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으며 그의 번성이 동, 서, 남, 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그의 생명은 위태로웠고,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돌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조상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야곱은 큰 위로를 경험했을 것이며, 담대한 확신을 얻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곱의 사닥다리 본문을 인용하여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늘 함께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물론 야곱은 그 순간 이 모든 의미를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야곱보다 더 크고도 풍성한 은혜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배웠고, 그로 인해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위로와 소망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 묵상질문

1.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늘만 우두커니 본 적이 있나요?
2. 하나님의 극적인 위로와 회복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 창세기 29~35장

### 이제는 알아(창 35:1-15)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알기 전에는 용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어떤 일이 닥칠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합니다. 일단 해보면서 하나, 하나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름에 걸맞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며 온갖 죄를 지었습니다. 베엘에서도 누워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이전처럼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처신을 더욱 바르게 해야 할 것이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가 만난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있는 신임을 깨달았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라반을 피해 에서를 만나고, 세겜에서의 하물을 만나며 그는 더욱 하나님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베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하란으로 떠나던 그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인 베엘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를 모시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의 삶은 180도 변화됩니다. 8절에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게 되었고, 그녀는 상수리나무 밑에 묻히게 됩니다. 그곳은 다른 신상들과 귀고리가 묻힌 곳입니다. 즉, 이제 야곱은 지난 과거를 다 이곳에 묻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갈 2:20)입니다. 나의 죄와 과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제는 정결하게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미련한 것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이제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알아,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을 신뢰함으로篤信 있는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보이시길 소망합니다!

#### 묵상질문

1. 아무것도 몰라서 용감하게 나아갔던 적이 있나요?
2. 이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사려 깊게 나아가고 있나요?





## 창세기 36~40장

# 내 삶이 형통하다고?(창 39:1-23)

형통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되어 감'입니다. 우리 모두는 형통을 사모합니다. 내가 뜻하는 바, 내가 기대하는 바가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사가 그렇듯이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라는 표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요셉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집에서 그는 채색옷을 입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순식간에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디안 손에 팔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그런 요셉을 바라보며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집을 떠나게 된 것은 불행입니다. 더군다나 노예로 팔려간 것은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을 보며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잘 섬겼으나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다시 지하 감옥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구한 인생이 아닌가요?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내리막으로 치달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도 그를 무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23절은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형통할만한 일이 없는데 성경은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형통과 붙어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 옆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흘러갑니다. 내 눈으로 보면 형통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형통입니다. 내 계획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절정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죽음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분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형통이 허락되었습니다.

우리네 인생을 가만 들여다보면 형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두고 '괜찮다, 감사하다'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 묵상질문

1. 형통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2. 나의 삶은 형통한가요?





## 창세기 41-45장

###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창 45:21-28)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옷'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채색옷을 입었고, 그것은 시기와 질투의 단초였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갈 때 요셉의 채색옷은 찢기고 벗겨졌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옷을 벗어두고 도망쳤습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이 바로에게 부름을 받을 때도, 요셉이 국무총리로 될 때도 그에 맞는 옷을 선물로 받았습니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옷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할 때 그냥 초청하지 않습니다. 그의 형제들에게 양식들을 주며 각기 옷 한 벌씩을 주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의 시기로 인하여 애굽으로 팔려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원치 않는 일들을 매번 당하며 지하에 매장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분명 '형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삶 저변에 가득했습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 전반을 통해 그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5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은 다른 형제들을 살리기 위하여, 다른 가족들을 가뭄과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대표로 이곳 애굽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로 보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세심하게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을 위로하며 옷을 함께 보냅니다. 옷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의 총리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떠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고 이제는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하는 참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옷을 통하여 그들이 찢은 채색옷을 기억하며 부끄러워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애굽보다 더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의의 옷을 통해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대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의의 예복을 입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 묵상질문

1. 여러분의 옷장에는 어떤 옷들이 있나요?
2. 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옷은 무엇인가요?





## 창세기 46~50장

### 담보의 은혜(창 49:8-12)

야곱은 르우벤, 시므온부터 베냐민까지 총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년에 12명을 다 불러서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이전에 요셉 한 명만 편애했던 그는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모두 불러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앞으로 그들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축복을 대충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먼저 순서상 르우벤은 장남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가장 귀하고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거의 저주를 받았습니 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의 첩인 빌하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을 자녀들은 시므온, 레위입니다. 하지만 시므온과 레위도 축복보다는 저주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분기가 맹렬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들을 두고 이스라엘 중에서 흠어질 것이라고 예언한 것처럼 앞으로 그들은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역사 뒤로 잊혀질 것입니다.

결국 그 다음 순서는 유다입니다. 유다에게는 온통 축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모든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그를 우러러 보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는 모든 원수를 무찌를 정도로 강력합니다. 마치 사자와 같습니다. 그것도 사자 새끼입니다. 사자 새끼는 젊음의 활력과 공격성을 의미합니다. 그 정도로 유다의 자손은 그의 원수들을 무너뜨릴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두 지파와 열 지파로 나뉘어 질때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다의 권세는 강력했습니다.

유다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담보를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베냐민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야곱과 온 가족을 위해 자신이 담보(종)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유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담보가 되셨습니다. 스스로 죄와 사망 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담보되심은 유다의 담보와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담보됨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 무결한 제물이셨고, 단번에 죄인들을 구원할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담보되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 묵상질문

1. 유다가 담보가 역할을 한 곳을 찾아보세요(창43-35장).
2. 우리를 위해 담보가 되신 분은 누구일까요?





# Exodus 출애굽기

---



그리스도 중심으로 출애굽기 읽기

---



## 출애굽기 1~6장

### 반드시 함께 하시는 주님(출 4:1-9)

모세는 자신을 죽이려고 한 바로의 낯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곳에서 이드로의 사위가 되었고, 40년 동안 양 떼를 치는 목자로 생활했습니다. 모세를 향해 4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인도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과거의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이 사명을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그는 과거 동족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 3:12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이나 혹은 과거의 경험해 집중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전히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의 지팡이로 하여금 뱀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당장 갖고 있는 것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일하시길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지 못한 것들에 주목하며 남과 자신을 비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이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가 갖고 있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찔렀으며, 예수님은 소년이 갖고 있는 오병이어를 통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머리가 아닌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상식적으로 뱀은 꼬리를 잡으면 머리가 자유로우므로 이에 물리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선 앞으로 모세에게 그의 상식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 말씀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보다 크시고 지혜롭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 묵상질문

1.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 쓰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2.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크고 지혜로우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 출애굽기 7~12장

###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포인트(출 7:1-7)

오늘 말씀에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이들의 부르심이 너무 늦은 건 아닌가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나이로 앞으로 무엇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심부터 듭니다. 상식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힘이 있고 젊었을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포인트는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당장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이나 여건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소명 앞에서 나 자신은 혹여나 어떠한 핑계를 대며 소명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이, 경험, 재정의 문제, 결혼문제, 육아, 건강, 등 도저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다고 느끼게 하는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가나안 정복 때 갈렙은 85세의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험한 헤브론 산지를 그에게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의 상황과 여건은 도저히 헤브론을 점령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갈렙이 가장 위험한 헤브론 산지를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이 산지를 점령할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그가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항상 변함없는 주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과 약속의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 묵상질문

1.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놀랍게 이루신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2.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지 않고 담대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소망합니다.





## 출애굽기 13~19장

###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선포하라(출 12:21-28)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들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피할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어린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지만 그 가정의 장자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를 유월절 절기로 지정하였고 이후 다음 세대 백성들도 이 절기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은 부모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부모세대가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사건들을 간증하고 나누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눔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침묵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행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2:28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유월절의 은혜와 구원은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만 임하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밤이 되자 마지막 재앙은 예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의 최고 권력자였던 바로의 장자부터 옥중에 갇힌 죄수의 장자까지 모두 죽었습니다. 또한, 가축의 처음 난 것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지만 이는 모두 뒤늦게 후회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된 슬픔이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기쁨이자 영광으로 다가올 것이고, 반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큰 애곡과 후회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며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 묵상질문

1.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기쁨과 영광으로 이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2.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간증을 다음 세대에게 담대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 출애굽기 20~26장

###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출 20:18-26)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임하신 주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 떨며 모세를 향해 간구했습니다. 간구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 당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바르게 믿는지 시험하시기 위함이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예배해야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의 신상으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이 은이나 금을 사용하여 어떤 형상의 신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은 충동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각적으로 매우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아지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떤 신상으로 만들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상으로 만들려는 유혹을 물리치며, 영이신 하나님께 영광 진리로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이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태우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온전히 태움으로써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롭게 되기를 바라는 제사입니다. 화목제 제사를 마치고 고기는 제사장과 모든 백성이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은총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의 손을 거친 인공적인 제단이 아닌, 모든 제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제단을 쌓아야 하셨습니다. 또 층계를 만들어 제단에 올라가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체가 드러나 그의 벌거벗음이 드러나는 부정을 행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제거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룩한 자세와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 묵상질문

1.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2.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 출애굽기 27~33장

###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출 32:1-14)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은 대제사장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었고 그들에게 황금 송아지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백성들의 죄악에 진노하셨고, 모세는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섬겨야 할 주인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섬겨주어야 할 존재와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는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섬기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태도는 하나님을 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고,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자인지 말씀을 통해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책망하고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아론은 영적 지도자로서 자격 미달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대제사장의 엄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그는 심각한 죄악을 백성을 대표하여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론의 어리석은 죄악을 보며 하나님이 세우신 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공동체 전체의 엄청난 위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지도자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진다면 그 위기는 축복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지도자 아론을 포함하여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선 이를 보시고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을 향해 그 뜻을 돌이켜주시고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묵상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 또한 십자가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평화가 임하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 묵상질문

1. 나의 만족과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2.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예배자로 살아가며,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 출애굽기 26~30장

### 성막과 제사장(출 29:45)

출애굽기 29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한 위임식 규례를 설명하며,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씻음과 옷 입음과 기름 부음으로 거룩하게 될 뿐 아니라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됨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제사장 직분이 "희생" 위에 세워진 사명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통해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가장 강조되는 주제는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왜 이토록 거룩하게 하실까요? 첫째, 모든 인간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은 더욱 철저히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분명한 한계가 드러납니다. 이런 복잡한 절차와 반복되는 제사를 통해서도 사람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단번에 드러진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의의 옷을 입히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거룩하셨고,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반복되는 제사나 복잡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지금도 만나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을 부담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기 위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자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묵상질문

1. 거룩한 삶을 위해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있으신가요?
2. 최근 나의 말과 행동과 선택은 하나님께 구별된 삶으로 드러지고 있으신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십자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 총애급기 31~35장

### 넘치는 은혜가 자격 없는 이들에게(출 34:6)

오늘 본문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십계명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으나, 모세의 중보로 인하여 다시 언약을 맺어주시고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것은 심판보다 은혜를 먼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직접 소개하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벌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도 함께 선포하십니다. 이 선포 앞에 모세는 즉시 엎드려 경배하며 다시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사실 모세가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자체도 은혜였고, 깨어진 언약을 다시 세워주심도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우상을 버리고 언약을 지키며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 조건 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중보는 일시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야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완전한 중보자가 필요하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실현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은 반드시 치러져야 했고, 그 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죄를 향한 공의를 동시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보를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반복되는 죄로 인해 넘어졌다 할지라도, 실패가 있었다 할지라도, 십자가로 인해 다시 은혜의 길이 열렸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즉시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죄책과 정죄감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로 인해 우리에게 임해야 했던 모든 벌이 단번에 해결되었으며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오늘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사무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 묵상질문

1. 나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중보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2.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기억하며 나의 삶에 돌이켜야 하는 죄의 문제는 무엇이며, 동시에 순종해야 할 영역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실천하는 하루 됩시다.





## 출애굽기 36~40장

### 성막의 완성(출 40:38)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40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며, 단지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만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교제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일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면 그들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예배의 질서를 가르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랜 시간 빚어가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해방을 넘어 임재와 예배와 만남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40장은 성막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성막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죄인 된 백성들은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방편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순종으로 성막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백성들과 함께 하였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한 머무름이 아니라 동행과 인도하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장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참 성막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과 불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던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의 길과 빛이 되어 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임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길 되시고,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묵상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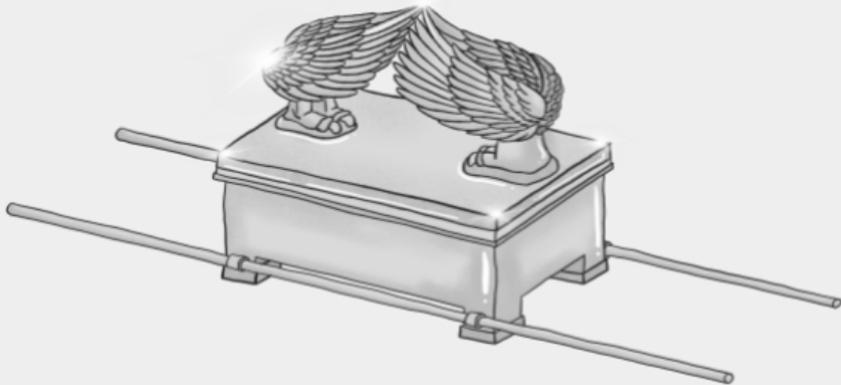
1.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나에게 필요한 순종은 무엇인가요?
2. 나의 삶의 결정과 선택은 나의 판단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인가요?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 Leviticus 레위기

---



그리스도 중심으로 레위기 읽기

---



## 레위기 1~5장

### 구약의 제사(레 1:4)

많은 분들이 레위기에서 성경 통독을 멈춰버립니다. 제사 규례와 절차가 어렵고 낯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지루하고 따분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연약하고 죄인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제사의 길을 열어 주심으로 그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특별히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모세조차 회막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기 원하는 자에게 제사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친히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는 번제에 대한 설명이 나타납니다.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불살라 드리는 제사로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드림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에 안수함으로 자신과 제물을 동일시하고, 그 제물이 대신 죽임을 당하여 그 피가 뿌려짐으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번제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지는 삶을 요청하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했지만, 예수님의 희생은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완전한 속죄를 경험하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기를 통해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번제를 통해 우리의 죄의 무게와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어제보다 거룩한 오늘, 어제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어제보다 예수님을 닮아 헌신하며 희생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 묵상질문

1.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걸리는 나의 죄는 무엇인가요?
2. 번제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나의 삶의 영역은 무엇인가요?  
나의 죄 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 레위기 6~10장

###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려면(레 9:23)

레위기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부적인 제사 규례와 절차를 주시고, 제사를 드릴 제사장을 세워 주셨습니다. 이는 죄인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확실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아론이 하나님 앞에 첫제사를 드리게 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질서가 있습니다. 바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먼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다음에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이는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보여 줍니다. 대표자가 먼저 하나님께 드러져야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가 온전히 드러졌을 때, 하나님이 영광이 백성 가운데 나타났고, 여호와의 불이 나와 제물을 사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 줍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과 순종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먼저 순종하셔서 낮아지셨고, 먼저 자신을 드림으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순종하고,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거룩을 외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과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말이 아니라 나의 삶이 먼저 하나님께 드러지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순종하여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먼저 드러진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보다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세상과 교회와 가정 가운데 전달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 묵상질문

1.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셨나요?
2.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대속을 기억할 때, 오늘 내가 먼저 순종하고 먼저 사랑해야 할 구체적인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 COME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평안교회 오세요



## Christ alone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 Outward focus

나보다 남을 섬기며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 Mature together

성도들이 말씀의 교제를 통해 함  
께 성숙해가는 교회입니다.

## Extended family

세대간의 화합과 신앙의 대잇기를  
열망하는 대가족 교회입니다.

